

을 듣든지, 하다못해 작품 옆에 쓰여 있는 설명문이라도 꼭 읽어. 그냥 가서 획 보면 발전이 없어.

한 분야의 덕후가 되어보는 것도 추천하네. 게임을 하든지, 사진을 찍든지, 프라모델 조립을 즐기든지, 음악에 심취하든지 뭐라도 좋으니 어떤 분야의 덕후가 되어보렴. 덕후 수준까지 경험을 극대화해볼 필요가 있어.

나는 사진 찍는 걸 정말 즐겨. 자네도 딱히 취미가 없다면 요새 DSLR 카메라들이 그런대로 가격도 나쁘지 않으니 사진을 한번 찍어봐. 그냥 막 찍지 말고 기왕이면 예술적으로 찍으려고 애써보는 거야. 그러면 각도나 색감에 눈을 뜨면서 감각이 더 예민해지더라고. 사람 얼굴 찍을 때도 무심코 찍는 게 아니라 빛도 보고 그림자도 보면서 찍으면 감도가 깊어져. 그러면 다른 사진이나 그림이나 디자인도 새롭게 눈에 들어올 거야.

그리고 길거리의 변화를 눈여겨보렴. 서울이라면 성수동, 홍대 앞, 망원동, 익선동, 가로수길, 서래마을, 용리단길, 해방촌... 길거리가 그냥 전시장이잖아.

유럽이나 일본에 여행을 가면 골목길의 스몰 브랜드를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취향이 다양해지고 있는 것 같아. 이러한 흐름은 소비자가 브랜드를 찾아내고 즐기는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 아닐까. 이 또한 크게 보면 일종의 트렌드겠지.

이때도 바깥에서 구경만 하지 말고 매장에 들어가서 체험해봐. 소문난 음식도 한 번 가서는 괜찮긴 한데 뭐가 좋은지 딱히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 서너 번은 가야 진짜 왜 좋은지 아는 것처럼, 뭐든지 한 번만 구경해선 몰라.

차석용 부회장은 오후 4시에 칼퇴하는데, 곧장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상점을 많이 다니신대. 올리브영 같은 데서 화장품 사는 여성이 있으면 그걸 왜 사는지, 용도가 뭔지 물어본대. 그러면 사람들이 의외로 대답을 잘해준다는 거야. 자네도 틈날 때마다 발품을 팔아야 트렌드를 피부로 느끼겠지.

트렌드는 하나의 점이 아니라 흐름이야. 윈드서핑할 때 물을 타듯이 흐름을 탈 줄 알아야 해. 지금의 트렌드 이전에 무엇이 있었고, 이 트렌드 다음에 무엇이 올지 캐치해야 하지. 내가 경